



금값 폭등 속 썰렁한 광주지역 금방들

“하루 고객 고작 1~2명... 문 닫을 판”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요. 30년 동안 금방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입주업체인 M 금방 관계자도 “누가 1돈당 13만원대인 돌반지를 선물하려고 하겠어요”라고 반문하며 “돌반지 선물값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현금선물로 돌리면서 돌반지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주눅했다.



금값 고공행진에 따라 금방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금감하면서 운영난을 호소하는 금방들이 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엔 매일 금반지 5~6개는 팔았는데

집안에 보관한 금 제품도 내놓지 않아

체들이 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의 금관련 상품인 ‘골드뱅크’에는 지난해보다 두배의 고객들이 몰리는 등 금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걱정했다. 과거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제품을 내놓는 사람들도 부쩍 줄었다.

회의 경우 하나 둘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1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외는 달리 ‘골드뱅크’는 연초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나 급증한 셈이다. 실물인 골드바를 판매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평소 매월 평균 14kg 정도 판매되던 것이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30kg 정도 팔리고 있다.

대주그룹, 유종근 前 전북지사 회장 영입

대주그룹은 17일 유종근(64) 전 전북도지사를 그룹 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회장은 대주그룹 창업자인 허재호 회장과 함께 건설·조선 등 그룹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도 둘째도 대주그룹의 안정을 되찾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상황에 서 무리한 확장 경영보다는 기존 자구안을 검토·보완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그룹의 성장동력은 조선포대교”이라며 “그룹을 정상화한 뒤에는 현재 추진 중인 조선포대교(대한조선)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남도 등 3개 시·도와 식품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치단체와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안전정보 공유 등 식품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전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도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통 3사, 휴일 번호이동 업무 않기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통신 3사가 오는 20일부터 매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지역 대리점의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해 앞새주 광고모델 탤런트 한지민은 탤런트 한지민이 ‘보해 앞새주’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에 따르면 최근 MBC 사극 ‘이산’에서 송승연 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탤런트 한지민과 계약기간 1년의 앞새주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식약청 업무협약 체결

이통 3사, 휴일 번호이동 업무 않기로

보해 앞새주 광고모델 탤런트 한지민

전남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전국 최고

식품안전연구 검사 결과 부적합률 1%에 그쳐

전남지역내 산지농협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해 동안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이 수도권 유통센터, 공관장 등에서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전남 농협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11%로 전국 9개 도지역 평균 3.62%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관내 16개 주요산지에 잔류농약속성 검사기를 보급하고 작년 한해 2천6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합원을 중심으로 농업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농식품 품질관리 교육을 확대해온 결과로 전남본부는 2007년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부문 자체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전남도의 생

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에 따른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에 따른 토양, 수질,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해 지난해 1만5천건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해온 것도 전남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농협 최석진 유통지원팀장은 “올해도 전남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닛산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 다섯번째 딜러

광주 중견업체 남광건설 선정

한국닛산의 고급브랜드 ‘인피니티’가 다섯 번째 공식 딜러로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대표이사 김대기)을 선정, 인피니티 공식 딜러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남광건설의 김대기 사장(왼쪽)과 한국닛산의 그렉 필립스 사장이 17일 서울 한국닛산 본사에서 인피니티 브랜드 광주딜러십 체결식을 가졌다.

인피니티의 다섯 번째 공식 딜러로 선정된 남광건설은 지난 1970년 설립된 이후 우수건설업체로 3차례 선정된 광주지역 대표업체로, 올 하반기 중 광주시 쌍촌동에 1천83.10㎡ 규모의 ‘노블모터스(Noble Motors) 인피니티 전시장’을 오픈해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 호남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인피니티는 올해 판매 목표인 3천500대와 향후 수입차 시장 5위권 진입을 위해 호남권 딜러인 남광건설을 선정함으로써 매출신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한국닛산의 그렉 필립스 사장은 “남광건설을 호남권 딜러로 선정함으로써 서울과 경기, 부산 외에도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고객들에게도 인피니티의 제품과 서비스 철학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대전 지역에도 인피니티 전시장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피니티는 현재 강남 SS모터스, 서초 한미모터스, 부산 반도 모터스, 분당 SK네트웍스 전시장 등 모두 4곳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the 6th National Half Marathon. It features a group of runners, a map of the course, and promotional text. The main title is '제6회 창선·살천포대교 개통기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6th National Half Marathon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Changseon and Salcheonpo-daegyo). The date is '2008년 3월 2일(일) 남해 창선대교타운' (March 2, 2008, Sunday, Namhae Changseon-daegyo Town).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1500-15522 and 0505-800-3539, and the website www.gamarathon.co.kr. The ad also lists prizes like a watch and a bag, and sponsors like Namhae-gun, Namhae-gyeongsang-do, and Gyeongnam-do.